

제1804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4월 26일 (음력 3월 21일) 토요일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News

- 휘발유 값 ↑ 당 1,700원 ②
- 강진 황금 암소 한우 ③
- 프로축구 전남 Vs 광주 ⑯

Books

- '사람의 한평생'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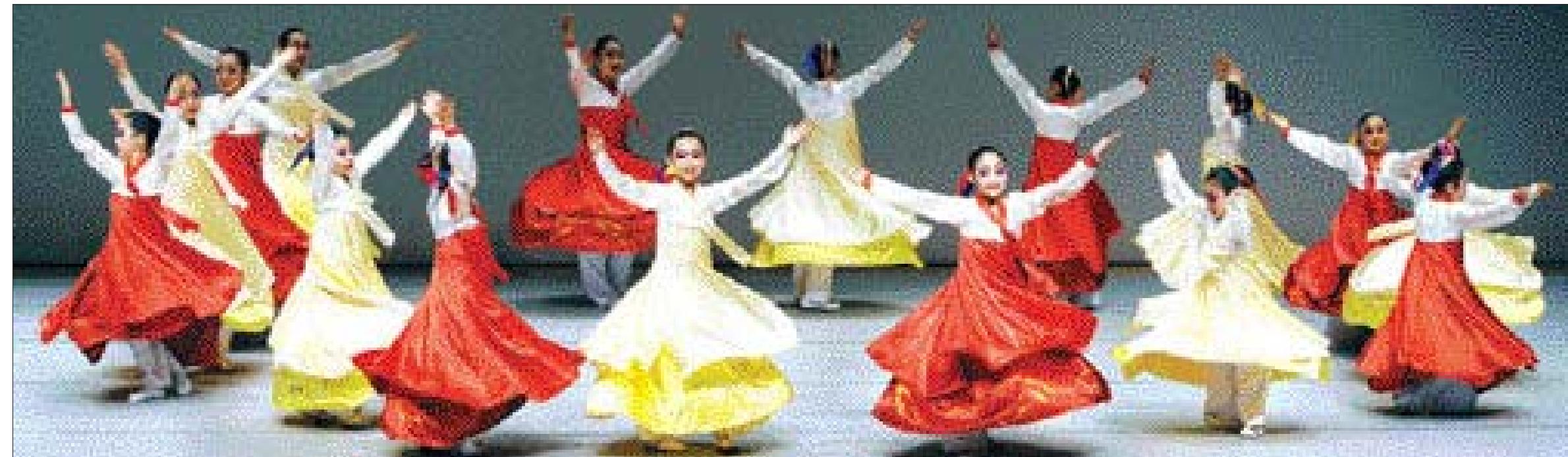
Entertainment



- 스포츠 스타들의 파워 ⑧
- 음악영화 Vs 가족영화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조기 ⑯



## 제 53회 호남예술제 화려한 개막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제53회 호남예술제가 25일 한국무용 경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창작무용 부문에 출전한 나주 초등학교 군무팀이 아름다운 춤시위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무용 입상자 명단 4면

/위저링기자 jrwi@kwangju.co.kr

# “亞 문화전당 건립 걱정 마세요”

BIE 인정신청서 최종 확정

## 유인촌 문화장관 “2012년 완공 차질 없다”



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면서 “광주는 컨벤션센터가 있어 회의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속박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특급호텔이 아니라도 중저가의 속박시설을 많이 세우는 것이 과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의 광주 방문과 관련, “실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해달라는 제안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미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2012년까지 전당 완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문화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주 아시아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누락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와 관련, “문화부의 7개 분야에서 문화 콘텐츠와 순수예술, 체육 등 4개 분야의 국정과제 중심으로만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여수엑스포가 개최되고 전당이 완공되는 2012년에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

받고 있다.

11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 랭킹 1위를 기록한 과승 준 국정기획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과 수석은 고려대 3학년생이던 지난 1983년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 밭 3필지를 매입하고 주소를 이전했으며,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본 거주지인 강남구 신사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동관 대변인은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신북읍 농지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는 농지법을 위반, 구설수에 올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총리 주재 여수박람회 지원위 첫 회의

정부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시설과 사후 운영방안 등을 담은 ‘BIE(세계박람회기구) 인정신청서’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또 개최 전 완공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7억원이 증액된 202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 부처별 지원 윤곽 = 국무총리실은 각급 기관과 단체의 엑스포 명칭 사용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SOC 건설 등 박람회 개최준비 관련 예산 지원과 기부금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복권기금의 박람회 지원 등을 제1차 지원과제로 선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 관련 국제행사 여수 개최와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학사일정 조정, 첨단T 등 과학기술분야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및 참가국 유치 협력, 유치당시 공약사항 및 세계 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요구사항을 이행키로 했으며 법무부는 출입국 및 체류관련 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박람회 관련 교부세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노동부는 박람회 기간 중 노사분규 억제 등 무쟁의를 유도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전시관 설치 및 전시물 지원, 어업수산분야 콘텐츠 개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관람객 유치기반을 조성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 靑 수석들 재산 의혹 ‘일파만파’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 신고 대상자 10명 전원이 ‘벼슬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남편 이모 교수(고려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 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천755㎡가 매입 4개월 뒤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6년 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수석은 농지를 구입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데다, 땅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24일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 신고 대상자 10명 전원이 ‘벼슬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남편 이모 교수(고려

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 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

천755㎡가 매입 4개월 뒤에 개발계획이 발표

되면서 6년 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수석은 농지를 구입하고

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데다, 땅투기 의

혹을 피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를 거짓

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24일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 신고 대상자 10명 전원이 ‘벼슬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남편 이모 교수(고려

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 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

천755㎡가 매입 4개월 뒤에 개발계획이 발표

되면서 6년 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수석은 농지를 구입하고

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데다, 땅투기 의

혹을 피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를 거짓

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24일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 신고 대상자 10명 전원이 ‘벼슬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남편 이모 교수(고려

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 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

천755㎡가 매입 4개월 뒤에 개발계획이 발표

되면서 6년 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수석은 농지를 구입하고

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데다, 땅투기 의

혹을 피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를 거짓

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24일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 신고 대상자 10명 전원이 ‘벼슬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남편 이모 교수(고려

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 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

천755㎡가 매입 4개월 뒤에 개발계획이 발표

되면서 6년 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수석은 농지를 구입하고

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데다, 땅투기 의

혹을 피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를 거짓

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24일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 신고 대상자 10명 전원이 ‘벼슬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남편 이모 교수(고려

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 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

천755㎡가 매입 4개월 뒤에 개발계획이 발표

되면서 6년 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수석은 농지를 구입하고

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데다, 땅투기 의

혹을 피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를 거짓

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24일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 신고 대상자 10명 전원이 ‘벼슬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남편 이모 교수(고려

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 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

천755㎡가 매입 4개월 뒤에 개발계획이 발표

되면서 6년 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수석은 농지를 구입하고